

한국 민담에서 살펴본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 - 〈심청전〉과 〈바리공주〉 중심으로 -*

李 裕 瓊**

국문 초록

현대 사회에서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이 증가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요구가 여성으로 하여금 기존의 여성의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사회적 요구는 본성을 억압하도록 하는 부성적 특성의 외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대의 여성은 저절로 부성상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이 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무의식의 보상성에 의하여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부성상은 언제나 집단의식과 관련되는 심상이다. 집단의식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소위 부성상의 부름을 받은 여성의 경우도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이 될 것이다. 부성콤플렉스의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추세는 그만큼 집단 사회의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의 욕구가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성상의 영향력은 여성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병리적 현상을 야기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그러나 모든 원형상이 그러하듯 그러한 영향력의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미가 숨어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부성상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 개인에게서는 부성상의 극복이자 동시에 부성상의 치유이고, 궁극적으로는 집단의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접수일 : 2010년 5월 3일 / 심사완료 : 2010년 5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28일

*일본 여성 용학과 정신분석가인 소노코 토요다(Sonoko Toyoda) 교수와 같이 2007년부터 분석심리학적으로 여성에 관한 탐구를 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논문은 2009년 여름에 발표했던 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용학과 정신분석가, 분석심리학연구소

연구를 위하여 부성상의 영향 하에 있는 여성 인물상을 다루는 두 민담을 선택하였다. <심청전>은 긍정적인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을 위하여, 그리고 <바리공주>는 부정적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을 위하여 선택되었다. 연구의 진행은 부성상과 관련된 여성 주인공의 민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는 민담의 해석을 통하여 부성상의 지배 하에 있는 여성이 겪는 전형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부성이 갖는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여성의 삶과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두 번째는 민담에서 강력한 부성상의 지배로부터 여성 주인공이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는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 유형이 여성성을 회복하고 전(全)인격적 실현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 된다. 마지막으로 부성상의 지배 하에 있게 된 여성은 궁극적으로 집단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여성 주인공이 성공적으로 부성상에서 벗어나 오히려 부성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집단의 삶에 새로운 면모를 가져다줄 하나의 전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민담을 통하여 다루려는 부성 콤플렉스의 진정한 목적의미가 될 것이다.

중심 단어 : 부모상 · 부성 콤플렉스 · 희생 · 여성적 수용성 · 부성상의 치유.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에 관하여

1. 부성상(父性像, Vater Imago)

흔히들 어떤 여성에 대해 '부성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쩌면 그녀와 아버지의 관계(소위 부녀관계)의 특별함을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른다. 분석심리학을 알고 있다면 외부의 아버지와와 관계를 고려하기보다는 그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부성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외부세계의 실존적 아버지와 내면세계의 부성상과의 구분이 있어야 하겠다. 융은 여러 곳에서 외부의 개인적 부모와 내면의 부모상과의 구분을 언급했다. 오히려 내면의 부모상에 의하여 외부의 부모가 전혀 다르게 경험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순진한 사람은 가까운 친족이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으나, 그것은 지극

히 일부만 실제와 일치하고 대부분은 마음속에서 생산된 상(像, das Bild)에서 비롯된, 바로 그 자신의 주체에서 나온 자료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마고(Imago)는 부모의 영향과 아동의 특수한 반응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이는 객체를 단지 매우 제한적으로 재현한 상이 된다. 물론 순진한 사람은 부모를 자신이 보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 상은 무의식 중에 투사되어왔고 부모가 사망해도 그 투사된 상은 계속 영향을 미친다. 마치 그 상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영혼처럼 작용한다. 원시인들은 이를 부모의 혼령(Elterngeister)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것을 부성 콤플렉스 혹은 모성 콤플렉스라 부른다.¹⁾

우리가 외부의 실제적 부모상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로 인하여 내면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소위 원형)를 일깨우고, 거기에 개인의 개별적 특수 반응이 함께하여 내면의 부모상이 형성된다. 이 내면의 부모상을 ‘콤플렉스(Komplex)’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콤플렉스의 논의를 고려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외부에 실제의 부모가 있고, 동시에 각자 내면에도 실제적 효력의 부모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외부의 실재하는 부모는 내면의 부모상을 형성하는데 있어 촉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내면의 실재인 부모상은 주체의 반응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극히 제한적 의미에서만 외부의 실제적 부모와 일치한다. 우리는 제각기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서 형성된 부모상을 외부의 부모에게 투사하게 되므로, 저절로 부모 중에 특별히 한 쪽을 더 친밀한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관계에서 부모 쪽의 반응도 상대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분명 실제와는 다른 복잡한 관계 양상을 나타내는 데에는 내면의 부모상이 관여하고 있다.

융은 내면의 부모상이 의식 발달의 초기 단계인 1세에서 4세 사이, 즉 의식이 아직 독자적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섬과 같은 불연속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 생긴다고 보았다.²⁾ 처음에는 부모상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하다가 자아의 분화와 더불어 구분되어 모성상과 부성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부성상은 남성성을 대표하는 심상으로 주로 모성상에 상

1) Jung CG(1928) : GW 7,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ßten”, *Zwei Schriften über Analytische Psychologie*, Par. 294.

2) Jung CG(1936) : GW 9/I, “Über den Archetypus : Der Animabegriff”, *Die Archetypen und das Kollektive Unbewusste*, Par. 135.

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부성상은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남성성의 기초가 된다. 모성상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남성 자아는 남성성을 획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성상과 동화되며, 그 동화에 의하여 남성성이 더욱 강화된다.

그럼에도 원래 모든 인간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모성상은 내부의 근원적 기초로서 작용하고, 부성상은 언제나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여겨져, 낮설고 타자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남성도 부성상에서 비롯된 권위나 힘을 외적 영향력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남성은 부성상과의 동화에 어려움이 없고, 또한 이러한 동화나 동일시에 있어서 이상화나 마술적 권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여성은 언제나 모성상과의 동일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부성상이 남성보다 더 낮설고, 이질적인 특성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성은 부성상을 이상화하고, 심지어 신적 혹은 초개인적 특성을 부여하게 되며, 그에 쉽게 매료되고, 사로잡히게 된다.

부성상은 여성에서든 남성에서든 기본적으로 자아 성장에 있어서 본능적인 것을 대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부성상은 질료적, 물질적, 대지적, 정서적, 육체적인 것에 대립되게 하는 원형이다. 특히 부성상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보호벽³⁾”으로 기능하므로, 모성상이 보호하며 지지해준 본능적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적 존재로서 적응하려 할 때, 또한 정신적 존재로 거듭나려 할 때 언제나 작용한다. 따라서 자아는 부성상의 도움으로 본능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정신적인 것을 형성하고,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부성 콤플렉스의 어떤 것들이 ‘정신적(geistig)’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이었다. 즉 부성상에서 ‘정신적’이라는 속성을 거의 부인할 수 없는데, 이는 주로 표명, 행동, 성향, 충동, 의견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부성 콤플렉스는 남성에게 권위에 대한 일종의 신봉과 모든 정신적 규약과 가치에 대해 철저한 복종 태세를 갖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성에게는 활발한 정신적 관심과 포부를 갖도록 한다. 꿈에서는 결정적인 확신, 금지와 충고들이 부성상에서 나온다. 그 원천은 비가시성으로 나타나는데, 내면에서 결정

3) Jung CG(1928) : 앞의 책, Par. 315.

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은 주로 어떤 권위적인 목소리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정신’의 요소를 상징하는 것은 대개 노인의 형상이다. 때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의 혼’, 즉 죽은 사람의 넋이 되기도 한다. ...⁴⁾

부성상은 여성에서든 남성에서든 심혼(Seele)보다는 정신(Geist)에 가까운 것으로, 사고나 지성적 정신 활동, 나아가서는 종교 생활, 판단이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나 원리이다. 또한 부성상은 정신의 역동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고무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부성상은 인류의 삶에서 형성해온 남성성 및 부정적인 것의 집약, 그래서 조상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문화적 가치의 총체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부성상은 집단의 삶을 책임져온 지배적 통치력으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부성상은 전통적 가치규범 및 체제, 규율, 질서 및 교육정신 등으로 나타난다.

부성상은 실제의 인간적 특성을 넘어 ‘남성적인 것의 마술적인 권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신화적으로 ‘노현자(老賢者)’라 불리는 원형적 형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노현자는 꿈에서 마법사, 의사, 사제, 교사, 교수, 할아버지 또는 어떤 권위를 가진 특징의 인물”이다. 노련한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부성상은 자아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이르면 통찰, 이해, 좋은 충고, 결정, 계획 등을 제공한다.⁵⁾ 결국 이러한 부성상을 통하여 한 개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숙지하게 되고, 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융은 심지어 여성의 아니무스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부성상에 기초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융에 따르면 “아니무스는 마치 교부의 집회나 그 밖의 권위자들의 모임과 같은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까다로운 판단은 주로 말과 의견들인데, 이것은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주위에서 보았던 평균적 진리, 정당성, 그리고 합리성의 전범으로 압축한 것, 즉 많은 전제를 모아놓은 일종의 사서로서 언제나 의식적이고 능력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는 즉시 의견을 가지고 거들어주는 것이다.”⁶⁾ 결국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부성상에 의하여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며, 아이디어를 생산하

4) Jung CG(1946) : GW 9/1, “Zu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m Märchen”, *Die Archetypen und das Kollektive Unbewusste*, Par. 396.

5) Jung CG(1946) : 앞의 책, Par. 398.

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에 옮기게 된다. 이는 모두 부정상이 창조적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때에 드러나는 긍정적 부정상의 효과이다. 그러나 부정상이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나 관습 및 가치를 강요하는 상징이 됨으로써, 강력하게 종속되게 하는 부정적 영향력도 함께 한다. 이는 한 번 정한 원칙이나 철칙을 바꾸지 않고 계속 고수하려는 보수적 성향이어서, 결국은 새로운 것으로 전혀 나아갈 수 없는 권위나 힘으로 작용한다.

2. 여성 콤플렉스의 여성

용은 내면의 부모상이 의식 발달의 초기 단계에 형성되기 때문에 여성의 부정 콤플렉스 혹은 남성의 모성 콤플렉스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실재하는 부모와의 근친상간적 관계를 배제하고 있다. 오히려 여성의 부정 콤플렉스 혹은 남성의 모성 콤플렉스의 형태로 보이는 근친상간적 특성은 우리의 내부에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는 원형적 특성, 즉 신의 쌍들(Syzygien)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 이미 정동적으로 갖춘 내용이 있어서 어떤 순간에 투사하게 된다는 가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내용은 신의 쌍이라는 주제인데, 그것은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그에 해당되는 여성성이 항상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주제가 엄청나게 널리 퍼져 있고, 정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며, 따라서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 위에서 지적한 대로, 신의 쌍에서 부모의 쌍을 추측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성적 부분, 즉 어머니는 아나마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이유대로 대상에 대한 의식성은 그 투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부모 역시 가장 미지의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의 쌍의 무의식적 반영상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부모의 쌍과 닮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완전히 낯선 모습이라는 것, 인간과 신의 비교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을 가정해야 한다. 무의식적 반영상은 영유아기에 획득된 것으로, 그래서 과대평가 되고, 그와 함께 주어진 근친상간 환상 때문에 나중에 억압된 부모의 상일 것이라 간주되고, 이러한 생각이 주지되어온

6) Jung CG(1928) : 앞의 책, Par. 332.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그 상(像)이 한 번은 의식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억압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⁷⁾

위의 구절에서 보듯이 부성 콤플렉스 혹은 모성 콤플렉스는 외부의 부모와의 실제적 근친상간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는 신의 짝의 원형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외부의 부모와 실제적 근친상간적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내면의 신의 짝의 원형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부성상과 짝을 이루게 되거나 혹은 모성상과 짝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모두가 남녀 융합의 원형적 이념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주로 부성상과, 남성의 경우는 주로 모성상과 짝을 이루듯이 내면의 부모상과 관계하게 된다. 모성상이든 부성상이든 근친상간적 관계를 형성한다면, 자아는 그러한 원형상과의 동화에 의하여 초개인적 특성을 갖게 된다.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이나 모성 콤플렉스의 남성은 그러한 동화에 의해 심하게는 과대망상 혹은 그 반대의 현상을 나타낸다.⁸⁾

결국 성인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는 아동기의 부성 원형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설명하자면, 초기 아동기 여성의 경우 선재(先在)하는 남녀 대극 쌍의 원형에 기초하여 남성의 부분에 부성상이 원형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강조된다. 그렇지만 자아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러한 원상적 부성상과 분리하여 가능한 한 원형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아를 부성 원형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은 또한 부성상이 원형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초개인적 내용을 투사하여 그들의 전적인 전능함을 경험하다가, 성장해가면서 차츰 그들의 인간적 특징을 발견하고 실망하면서 투사를 거두어들이게 되고, 마침내는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부성상의 탈신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성상은 자아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심상이 된다. 여성의 자아는 부성 원형의 초개인적 특성에 동화되므로, 자아 콤플렉스의 독립적 성장이 어렵게 된다. 이런 의미

7) Jung CG(1936) : 앞의 책, Par. 135.

8) Jung CG(1936) : 앞의 책, Par. 138.

에서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는 증상 콤플렉스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부성상은 종종 아동기 여아의 꿈이나 환상에서 자아의 공간에 위협적으로 침입해오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꿈 혹은 환상에서 여아의 방에 큰 독수리가 들어와 무서운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거나, 나이 든 백발의 노인이 앞길을 막거나, 드라큘라와 같은 검은 악마가 자신이나 여동생을 잡아가려는 내용들로 표현된다.

다시 강조하면 자아 콤플렉스의 독립적 분화가 가능해지면, 탈신성화된 부모상은 자아의 배경으로 물러나 무의식적으로 된다. 부모상이 배경으로 물러나야 자아 콤플렉스의 고유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자아는 원형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다. 사춘기에 아니무스의 발달이 있게 됨으로써 자아는 아동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원형과 관계한다. 아니무스는 무의식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주자로서, 분화된 자아에 후반부의 삶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원형이다. 자아는 아니무스의 보상적 내용에 의하여 내면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으며, 이로써 전(全)인격적 실현을 위한 삶의 여정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아동기의 부성상과 제대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의 경우, 사춘기 이후 아니무스가 아니라, 부성상이 아니무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는 원형적 특성을 갖는 부성상이 사춘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부성-아니무스는 자아 콤플렉스를 사로잡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자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성 원형의 특성을 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제대로 독립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아 콤플렉스가 오히려 배경으로 물러나게 된다. 결국 여성에서의 부성-아니무스 상태는 부성상의 초개인적 특성에 매료되어 개인적 인격의 분화 발전이 저지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니무스-부성상은 실제 외부 대상에 투사되어 경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성상은 주로 아버지, 선생님, 신부님 혹은 목사님, 유명인사, 또한 남편에게도 투사하는데, 그렇게 투사한 대상들과 특별한 관계, 주로 심적 의존 관계를 맺는다. 이런 유형의 어떤 여성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머리 주변에 오로라를 보았다고 하거나, 그의 눈빛이 전능하여 자신을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이런 유형의 여성은 아동기에 돌아가신 아버지

가 꿈에 아주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여 지지와 격려를 하였다거나, 그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하는 등 출현히 계속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부성상은 모성상과 달리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힘이나 강력한 영향력으로 경험되듯이, 투사된 부성상은 외부의 사건이나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부성상 영향력은 특히 여성의 직업이나 이성 관계에 반영되므로 전형적 특성을 나타낸다.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에서 보이는 이성 관계의 양상은 대략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은 모성상과의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성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이 유형의 일부는 상대적으로 여성성을 강조하고 남성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그녀의 여성성은 개인성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부성상을 투사한 남성과의 관계에서 부성상의 연인으로서 강조된 것이다. 이런 경우 주로 관계에서 부각된 암시 혹은 투사된 내용의 여성성이므로, 원형적 특성 즉, 아니마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유형의 여성들은 모성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아줌마가 되지 않는 유형의 여성들이다. 결국 그녀들은 아버지의 연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딸인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의 여성은 부성상에 의하여 자신의 여성성이 전적으로 위축되거나 부정된 경우이다. 이 경우 특정의 여성과 동성애적 관계에 이를 정도로 가까워지지만, 대부분의 다른 여성들과는 편안하게 어울리지 못한다. 이처럼 동성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종종 자신의 여성성을 주변 여성들에게 투사하여 그 여성성을 흠모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 유형의 여성은 여성들과의 관계보다 남성들과 더 자연스럽게 친밀한 유대감을 갖는데, 이는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관계를 맺는다.

그 밖에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은 직장이나 일에 있어서 비교적 능력을 잘 발휘하여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부성상이 외부세계로 나아가는데 있어 지지적 힘이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초기 아동기부터 남성처럼 매우 적극적이고 경쟁적인 활동을 펼치며 살아간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신념에 찬 추진력을 갖고 있어서, 매사에 능동적이고 실천적이며, 심지어는 매우 독립적으로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녀들이 실행하는 삶의 내용은 하나의 신념, 즉 부성상의 요구에 충실한 것

이다. 이는 사회적 요구, 원칙 및 규범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이룩하게 되는 성과이다. 그녀들은 변호사, 의사, 교사,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어찌면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더 성실하고 집단의 이념에 부합한 사람일 것이다. 부성상의 요구는 자신의 몸이나 개인적 조건을 거의 무시하고 신념에 동일시된 내용들을 실행하게 한다. 그래서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은 모성상에 기초하고 있는 여성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여성들 중에는 남다른 신념이나 성스러움의 실현을 위하여 온전히 일생을 종교에 헌신함으로써 개인적인 삶을 희생한다.

여기서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들이 어느 정도로 부성상의 영향에 놓여지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서양의 민담을 하나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독일 민담 <마법에 걸린 공주>⁹⁾에서는 공주가 산(山)에 있는 혼령의 마법에 걸려서 청혼해오는 모든 젊은이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지 못하면 목숨을 빼앗는다. 공주는 밤마다 산에 가서 청혼자에게 낼 수수께끼를 산의 혼령에게 받아온다. 공주는 페터(Peter)라는 남자 주인공에게도 산의 혼령이 지시한 그대로 문제를 내는데, 그것은 공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맞추는 것이다. 첫 번째 수수께끼에서는 공주가 아버지의 백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수수께끼에서는 공주가 아버지의 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수수께끼에서는 공주가 산의 혼령의 머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맞혀야 한다. 여기서 공주는 전형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사고의 내용은 바로 부성상이 제공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온통 부성상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부성상은 이처럼 제대로 분화하지 못한 여성 자아를 사로잡고 그 자신의 내용을 실현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여성의 삶을 전적으로 부성 원형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에는 그녀를 사로잡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형의 이러한 의도는 하

9) Von Franz ML(1986) : *Psychologische Märcheninterpretation*, Kösel, S. 127-8.

본 연구자는 아직 이 민담을 그림(Grimm)형제가 수집한 민담에서 찾을 수 없어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민담이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을 묘사하기에 아주 적절한 예이므로, 폰 프란츠 여사가 소개한 민담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차용한 것임을 밝힌다. 폰 프란츠 여사는 이 민담을 남성의 애니마에 관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주인공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주는 부성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의 전형이 된다.

(나의 궁극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한국 민담에서 다루어보도록 하자.

민담에 나타난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

우선 민담이 한 개인의 콤플렉스를 다루기보다는 보다 보편적 심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민담에서 부성 콤플렉스를 살펴볼 수 있는지를 간단히 언급해보자. 민담에서의 부성상은 한 개인의 부성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집단무의식에서 형성된 전형적 인물상이다. 민담의 부성상이 개인적 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어떤 유형을 나타내기 위하여 취하게 되는 규정적 모습이다. 이처럼 내용적으로 전혀 한 개인의 아버지와 관계하지 않지만, 부성 원형은 부성 콤플렉스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¹⁰⁾ 그러므로 부성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성 주인공의 민담은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를 다루는 현상들을 전형적으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담은 부성상의 지배를 받은 여성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인격의 성장과 완성에 이르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두 가지의 민담을 소개하고 해석하려 한다. 그 둘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 <심청전>과 <바리공주>이다. 일부 연구들에서 <심청전>과 <바리공주>가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무속적 제의에 관한 연구에서는 두 민담의 여성 주인공들이 모두 저승을 다녀온, 소위 죽음을 맞이했다가 희생하여 돌아온 내용으로 공통점을 찾고 있었다. 말하자면 피안의 세계, 지하세계, 사자(死者)의 세계를 다녀온 여성 사면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다.¹¹⁾ 본 연구자는 두 민담에서 부성상과 관련된 여성 주인공에 주목하여, 이들 유형의 여성들이 갖는 운명적 삶의 형태와 그것을 극복하는

10) Jung CG(1939) : GW 9/I, "Die psychologischen Aspekte des Mutterarchetypus", *Die Archetypen und das Kollektive Unbewusste*, Par. 161.

"모성 원형은 이른바 모성 콤플렉스의 기초를 이룬다."

11) 여기서 연구된 논문들의 제목을 제시하지 않겠다. 가령 구비문학적 연구는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인공이 저승세계를 다녀온 인물들로 두 민담을 연결시키고 있다면, 여성학적 연구는 효(孝)에 관한 내용을 유교적 가부장제와 관련시켜 두 민담을 함께 다루고 있다.

내용들을 크게 두 방향으로 제시할 것이다. <심청전>은 긍정적 부성 콤플렉스의 유형으로, <바리공주>는 부정적 부성 콤플렉스의 유형으로 소개하고, 이 두 주인공이 부성상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실현하게 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1. 심청전—긍정적 부성 콤플렉스

<심청전>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효녀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고대 소설로 알려져 있으나, 또한 구전된 이야기를 문자로 기술하게 됨으로써 소설로 알려지게 된 것일 수 있다. 판소리 등으로도 재현되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에게 <심청전>은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의 하나일 것이다. <심청전>은 전형적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야기인데 해석 작업을 위하여 그 줄거리를 간추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심봉사에게 심청이라는 지극한 효심을 가진 딸이 있었다. 하루는 심봉사가 스님을 만나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공양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심봉사는 너무 가난하여 공양미를 마련할 수 없어서 고민하였다. 이를 알게 된 심청은 중국 상선에 쌀 300석을 받고 자신을 팔았다. 중국 상선의 선원들은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하여 심청을 해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심청이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죽지 않고 용궁에 도착하였다. 용왕이 심청의 효심에 감동하여 연꽃 속에 담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었다. 상선의 선원들이 그 연꽃을 발견하여 임금님에게 바쳤다. 연꽃에서 심청이 나타나자 임금님은 심청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심청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장님잔치를 베풀었고, 심봉사는 우여곡절 끝에 딸을 만나 감격스러워 하다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야기는 원래 심청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눈먼 아버지가 젓동냥으로 딸을 키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심청이라는 여성 주인공에게는 모성상은 없고, 부성상이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더구나 부성상과의 관계는 특별한 효심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효심은 아버지를 정성으로 모시고 따르다는 형태이므로, 긍정적 부성상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의미한다.

심봉사는 딸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부성상이긴 하지만, 눈이 멀기 때문에 제

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정상일 수 있다. 더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정상은 딸이 외부세계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방향이나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인물상이다. 말하자면 여성에게 부정상은 하나의 세계관을 갖게 하는 기초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눈먼 부정상은 딸을 전혀 외부의 삶으로 인도할 수 없거나 왜곡된 혹은 소외된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수 있다. 그래서 눈먼 부정상을 가진 심청은 아직 외부세계에 제대로 입문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심청의 눈먼 아버지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지배적인 집단의식에 편승하지 않는 부정상으로 볼 수 있다.¹²⁾ 이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원칙과 가치에 기초한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될 수도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감지력과 직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와 교류할 수 있어서 종종 사면이나 예언자의 역할을 해왔다. 그들은 왕에게 신탁을 전하거나, 나라의 미래를 위한 징후를 읽거나, 운명적 사건들을 예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맥락에서 집단의 삶에 기여한다. 용 심리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¹³⁾ 인간의 내부에는 주관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심성, 즉 보편적 정신구조가 있다. 따라서 눈이 멀었음은 내면을 향하여 보는 것이거나, 현상 너머 혹은 그 이면에 있는 근원적 사실들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눈이 먼 심봉사는 그와 같이 인간의 내면에 기초한 객관적 가치에 주목하는 부정상이 된다. 심청이 이러한 부정상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정성으로 모신다는 점은 사회적, 집단의식의 가치와 의미에서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지배적인 집단의식의 삶과는 구분

12) 여기서 심봉사를 부정적 부정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민담의 전개가 집단의 대표인 왕(王)이 문제가 있는 경우와는 다른 이야기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평범한 개인을 중심인물상으로 내세워 시작하는 민담은 집단의 대표가 갖는 문제를 해결할 인물상이 어떠한 정신적 조건에서 자라나며, 어떻게 집단정신에 필요한 보상적 내용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서술 방식으로 풀어간다. 그래서 그 평범한 인물상의 특성은 왕과 같은 대표인물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보상적 의미를 가져올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13) Jung CG(1921) : GW 6, *Psychologische Typen*, Par. 697.

“내향적 태도’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유전을 통해 주어진, 주체 안에 존재하는 정신구조에 방향을 맞춘다. 그러나 내향적 태도를 자아의 주체와 똑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내향적 태도란 자아가 발달하기 전 주체의 정신구조이다. 원래 깊숙이 밑에 놓인 주체, 즉 자기는 자아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자기는 무의식을 포괄하는데 비해 자아는 본질적으로 의식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되는 다른 삶의 원칙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여성임을 의미할 수 있다.

심봉사는 우연히 스님을 만나 공양미 300석으로 눈을 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여기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은 부성상이 집단 의식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종교의 지도자로서 인간 내면의 삶과 연관이 있는 인물상이므로 눈먼 심봉사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가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종교이므로 집단 의식과 관계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스님은 또한 부성상을 집단 의식과 관계맺게 해주는 매개적 인물상이 된다. 눈을 뜨기 위하여 쌀 300석을 부처님께 바친다는 것은 주도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 의식에 직접 관계하기보다는 먼저 종교적 이념에 부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오랫동안 내향화해온 심봉사가 시대정신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종교적 이념에서 수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심봉사에게 요구된 것은 공양미 300석(石)이다. 석이나 섬은 둘 다 한 가마니에 해당하거나, 장정 한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로 알려져 있으므로, 결국 300명과 관련된 숫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심봉사가 눈을 뜨기 위하여 끌어내어야 할 심적 에너지는 300명에 해당하는 힘이다. 더구나 쌀은 가장 중요한 주식인 밥을 짓는 곡물로서 공양해야 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심봉사가 지불할 내용은 여러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집단적 가치를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심봉사가 눈을 뜨는 것은 개인적 가치를 넘어 집단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심봉사가 스님에게 선뜻 공양을 약속한 것은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외향화 하겠다는 의미이다. 부성상이 눈을 뜨겠다는 욕구는 마침내 부성상의 영향력 하에 있는 딸의 과제로 주어진다. 심청이 아버지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성상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그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성상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고스란히 수행하게 될 인물상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성상의 지배 하에 있는 딸은 부성상의 의도를 실현하는 도구가 된다. 실제로 긍정적 부성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성상이 암묵적으로 이런 유형의 여성의 삶을 지배하게 되므로,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부성상이 원하는 것이다. 혹은 부성상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녀가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양미 300석은 심봉사 대신 심청에 의하여 지

불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들이 부성상의 요구에 따라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저절로 집단적 가치의 것을 실현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심봉사가 눈을 뜨는데 드는 300석의 쌀도 이미 그 자체 집단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 긍정적 부성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의 경우 부성상의 요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내면의 명령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르게 되면 언제나 개인적 한계를 넘어 초개인적 크기의 수행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유형의 여성들보다 유능한 모습으로 부각되는 이유가 된다. 이는 또한 주어진 역할에 전적으로 충실함으로써 훌륭한 페르조나(Persona)를 형성한다. 그러나 그녀들의 수행은 전적으로 부성상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개인성을 갖지는 못한다.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 신념에 충실한 인물일 뿐, 본성적으로 자신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이로써 그녀들의 개인 인격은 완전히 희생되어버리고 만다.

긍정적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이 부성상의 요구에 전적으로 따르면,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되고, 그것은 개인 인격의 죽음을 가져온다. 여기서 이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 여성의 자아가 부족감이나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하여,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부성상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에 따른 인격의 확장이나 남다른 성과를 올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여성은 자신의 성공적 결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초기 아동기부터 그토록 부성상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매료되었던 것도 바로 자신의 취약한 상태를 보완해줄 힘을 부성상에서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여성에게 부성상에 의한 실현은 결국 자아 팽창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원형적 힘을 개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동화하였기 때문이다. 자아가 성공적으로 실현하자마자 곧 원형적 내용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저절로 자아의 붕괴나 해체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자아가 운명적으로 부성 원형의 부름을 받아 그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여성의 자아가 부성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음, 결국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성상이 긍정적 인 것은 집단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성

의 자아가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여성은 여성 영웅의 전형에 해당된다. 그녀는 부성상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따르게 되는데, 이로써 부성상의 진정한 실행 도구가 된다. 이때에 여성 자아는 실현된 결과에 대하여 결코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자아가 부성상의 요구에 따른다면 자신이 희생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성상에 따른 성공적 수행이 결코 자아 팽창으로 이끌지 않는다.

심청이 공양미를 지불하기 위하여 제물이 될 여성으로 중국 상선에 팔려갈 것을 자청하였다. 중국 상선에 팔려감으로써 심청이 부성상의 요구를 실현하기로 했으나, 동시에 지배적인 부성상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생겨났다. 중국 상선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육지와 육지를 오가며 거래를 하므로,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기도 하고, 의식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여성 자아가 부성상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아 콤플렉스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 인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근원적 원형인 부성상의 영향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두 경우 모두 부성상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 인격의 상실, 즉 일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럼에도 후자의 경우는 부성상의 요구에 응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개인성과 집단정신을 구분함으로써, 고유한 개별 인격은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다. 주어진 운명에 따라 부성상이 제안한 역할을 수행하여 개인성의 희생이 있다면, 오히려 이를 통하여 보편적 인간으로 변화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게 이루어진 희생이 자아로 하여금 부분적 특성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변환에 이르게 한다면, 자아는 더 이상 부성상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성상의 부름을 좇아 개인적 부분적 특성을 희생하고 획득하게 되는 보편적 특성이야말로 부성상을 벗어나게 만드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민담에서는 심청이 목숨의 대가로 부성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중국 상선은 그렇게 변화된 심청을 데려간 것이다. 심청이 물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이는 보편적 인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맞이하는 상징적 죽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심청이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죽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용궁에 도착한다. 여기서의 용궁은 눈먼 부성상이 관여하던 바로 그 세계에 해당할 것

이다.

일반적으로 바다는 생사가 교차되는 근원적 장소, 소위 생명의 근원지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심청은 용왕을 만난다. 심청이 부정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인 인격을 희생하였으므로, 편협한 개별 인격의 측면은 해체되어 생명이 탄생하는 근원적 자리로 되돌아간 것이다. 용왕은 또 다른 긍정적 부정상의 모습으로서 이제 심청에게 생명을 보증하며 새롭게 태어나도록 연꽃에 태워 세상으로 돌려보낸다. 눈먼 아버지-스님-용왕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부정상은 이제 개인성을 희생한 자아를 지지하는 힘으로 구체화된다. 용왕이 연꽃에 태워 세상으로 심청을 돌려보내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같은 것이다. 심봉사는 부처님께 공양을 바쳐야 했다. 이는 부정상의 개별적 특질을 넘어 부처님이라는 보다 더 보편적 원형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심적 에너지로 제공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심청을 보편적 인간으로 변환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심청이 연꽃에 담겨 물 위에 떠오르게 된 순간을 분석심리학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 자아가 죽음에 해당하는 내향화에 이르게 됨으로써, 모든 심적 에너지가 축적되어 내적으로 완전 포화 상태로 충만하였다가 마침내 폭발적인 힘으로 리비도가 분출되면서 외향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써 자아는 의식의 빛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격으로 탄생된다. 민담에서의 연꽃은 그 속에 심청이가 들어있는 줄 모를 정도로 둥글게 감싼 구(求)와 같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런 연꽃은 완전히 보호된 공간,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공간에 해당한다. 소위 연금술에서의 ‘비밀의 용기(vas hermeticum)’, 즉 위대한 창조적 변환이 일어나는 자궁과 같은 곳이다. 심청이 그 자궁에서 보호를 받으며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의 형상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전체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여성적 수용력의 형상화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자궁의 연꽃이 심청을 수태하고 있으므로, 이 공간에서 심청은 여성성을 회복하고 재탄생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연꽃은 그 자체 혼돈, 어두움, 알 수 없음에 해당하는 진흙에서 가장 빛나는 생명력으로 피어오르는 꽃으로 오랜 어려움을 거쳐 마침내 도달하게 된, 개인 인격의 실현, 즉 전(全)인격적 실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기와 같은 모습으

14) Jung CG(1940) : GW 9/I, “Zur Psychologie des Kindarchetypus”, *Die Archetypen und das Kollektive Unbewusste*, Par. 270.

로 연꽃 속에 담겨진 심청은 황금의 알(卵) 속에 있는 어린이와 같이 만달라의 중심에 나타난 정수(精髓)에 해당하므로, 이 모든 형상은 전체성을 상징한다.¹⁴⁾

연꽃에서 새롭게 태어난 심청은 임금님과 나란히 집단의 삶을 보충하는 대표주자가 된다. 한 개인의 전(全)인격적 실현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하나의 전형이므로, 집단의 대표가 된다. 민담에서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임금은 아내가 없었다. 이것은 부정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의 의식의 삶에서 여성적 요소가 빠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심청이 임금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여성 자아의 삶에 여성성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낸다. 더구나 임금의 아내가 되었음은 자아가 더 이상 부성의 원형적 힘에 이끌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고유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심청이 구제되어 임금의 아내가 된 것은 여성성의 회복으로 정신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전(全)인격적 실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청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장님잔치를 베푼다. 장님잔치는 심봉사와 같은 부성상들을 집단의 의식의 삶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청은 이제 임금님의 아내, 즉 집단의 여성 대표주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식의 삶에 필요한 집단정신의 내용을 수용하려 하는 것이다. 더구나 장님들은 기존의 가치관에 부응하는 부성상이 아니라 내면에서, 즉 인간의 심혼적 기초에서 살아있는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부성상이므로, 집단에 새로운 정신의 내용을 보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심청은 바로 집단의 삶을 위하여 본성에 충실한 정신의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여성의 전형이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심청이와 같은 여성 유형은 어떤 의미에서든 부성상의 부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러한 부름을 받은 여성의 고통스러운 여정은 저절로 집단의 삶에 관여하게 된다. 부성상은 그녀를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녀 자신은 희생된다. 그녀가 부성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민담에서 심청이 보여준 부성상을 위한 전적인 희생은 여성적 수용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성상의 요구는 그러한 여성적 수용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성상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응답은 여성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적 방식은 다름이 아니라 기꺼이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겪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수용력이 아버지의 딸을 모성-여성으로 변환하도록 이

끝났다. 결국 이 유형의 여성에게 일어난 전(全)인격적 변환은 부정상에 의해 수행된 내용보다는 여성적 수용력에 의한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심청전>에서 심청의 효심이 하나의 전형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진정한 여성의 수용력이 가져온 결실이기 때문이다.

2. 바리공주¹⁵⁾-부정적 부정 콤플렉스

<심청전>에서 여성 영웅이 부정상을 극복하고, 자신의 인격적 완성 뿐 아니라, 부정상까지 구제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제 다루게 될 민담 <바리공주>는 여성 영웅이 겪는 고난과 극복의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심청전>에서 여성 영웅이 긍정적 부정 콤플렉스의 유형이라면, <바리공주>는 부정적 부정 콤플렉스의 여성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여성의 부정적 부정 콤플렉스의 극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해석을 위하여 민담 <바리공주>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하였다.

어느 조선의 왕은 아들이 15세 되는 해에 결혼을 시키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흥조의 해라 왕자가 결혼하면 일곱 공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으나 왕은 왕자를 결혼시키고 왕위를 물려주었다. 결혼 후 왕위에 오른 왕과 왕비는 예언대로 일곱 공주를 낳았는데, 왕은 일곱 번째 공주가 태어나자 그 공주를 내다 버리도록 명령하였다. 공주는 옥궐에 떨어져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물에 버려졌다. 중생을 제도하던 스님과 제자가 그 옥궐을 발견하고 '바리공덕'이라는 노부부에게 맡겨 기르도록 하였다. 공주가 15세 되던 해에 왕과 왕비는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그들의 병이 나오려면 버린 공주를 되찾을 것과 삼신산에 있는 무상신

15) 민담 <바리공주>는 민담보다는 흔히 무조(巫祖)신화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샤먼이 된 자의 원형적 체험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원형적 체험들은 굿과 같은 무속 제의에서 거듭 재현되며, 또한 사람들에게 구전되어 마침내 민담으로 정착하게 된다. 오늘날 굿에서도 <바리공주>가 제의의 일부로 들어가 재현되고 있다. <바리공주>를 무조신화로 본다면, 그 원형적 체험을 한 샤먼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남성 영웅의 이야기는 여성의 심성 속에서, 여성 영웅의 이야기는 주로 남성의 심성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신화적으로는 <바리공주>를 여성 주인공인 바리공주를 남성의 아니마로 보아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담인 경우 여성 주인공을 굳이 남성의 아니마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는 구전되면서 저절로 여성 주인공에게 자아를 투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담 <바리공주>는 여성의 삶의 전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의 신약인 생명수를 구해야 한다는 처방이 주어졌다. 왕과 왕비는 버린 공주를 다시 찾아내어 '바리공주'라 불렀다. 기르던 여섯 공주들 중에는 아무도 왕과 왕비를 위하여 신약을 구하러 가지 않았으나, 일곱 번째 바리공주가 신약을 구하겠다고 자청하여 길을 떠났다. 남장을 하고 바리공주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스님을 찾아가 신약에 대해 물으니 나화(羅花)를 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였다. 나화의 도움으로 무사히 무상신이 사는 곳에 이르니, 무상신은 바리공주가 3년 동안 물을 길고, 다시 3년 동안 장작을 마련하고, 또 다시 3년 동안 불을 지펴야 신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바리공주가 9년 동안 그것을 해내면서 무상신과 결혼하여 일곱 아들을 낳았다. 왕과 왕비가 위독하여 마침내 죽게 되자 급히 공주가 신약을 갖고 돌아와 죽은 왕과 왕비를 다시 살려내었다. 신약은 그녀가 9년 동안 매일 길던 물과 장작이었던 것이다. 왕과 왕비를 살린 공주는 일곱 아들과 무상신을 소개하고 공주는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민담의 시작에서 주인공인 공주의 출생에 관한 배경적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공주의 출생에 관한 내용에서 공주가 부성상과 어떻게 연루되는지 잘 드러난다. 이야기는 왕(王)이 15세가 된 아들을 결혼시켜 왕위를 물려주려는 것으로 시작된다.¹⁶⁾ 왕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함으로써 집단 의식의 변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집단을 통치하던 왕이 더 이상 지배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집단의식을 대표하는 상징의 교체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징은 집단무의식의 보상적 기능에 의하여 형성된 새로운 심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민담에서 늙거나 병든 왕이 여러 어려운 시험을 거쳐 상응하는 자격을 획득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다. 소위 집단의식의 쇠신 및 교체는 권한을 물려주려는 선왕과 권한을 물려받을 새로운 왕이 제각기 당위성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미 영향력을 상실한 왕의 교체 의도는 오히려 왕의 일방적 태도를 드러낼 뿐이다.

16) 여기서 다시 한 번 왕(王)이 중심이 되는 민담과 앞선 〈심청전〉과는 다른 이야기 전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의 서두에 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부에 도움을 청하면서,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의 〈심청전〉에서 심봉사의 눈먼 상태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보상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았고, 〈바리공주〉에서 왕의 행위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로 부각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다.

왕과 왕비의 결합, 즉 결혼식은 대관식만큼이나 중요한, 집단의 삶을 담보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따라서 대관식 뿐 아니라, 왕가의 결혼식도 인위적으로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왕과 왕비의 결합은 집단의 삶에서든 개인의 삶에서든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의 조화와 균형에 기초하는 것임을 전형으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는 물론이고, 그의 짝이 될 여성도 집단의 새로운 여성적 요소에 상응하는 특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민담의 시작은 선왕의 일방적 의도대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왕좌가 넘겨지게 된 것을 폭로하고 있다. 이것으로 한 집단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힘, 즉 남성적 지배세력이 갖는 경직성, 일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민담에서는 왕위의 교체를 의도하고 있는 때가 흥조의 해로 언급되어 있다. 흥조의 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집단의식의 문제이자 동시에 그의 대표주자인 왕의 문제를 알리는 것이다. 혹은 집단의 삶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집단의식의 쇄신을 위하여 왕이 직접 해결에 나서는 때가 흥조임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선왕(先王)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교체는 집단의식의 근본적인 쇄신이란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여성의 심리로 소급한다면, 우선적으로 부성상의 지배적 영향력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혹은 부성상의 주도에 의하여 여성 의식의 삶이 남성적으로 발전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왕의 모습은 스스로 의식의 삶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의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에 해당한다. 여기서 일방적이고 경직된 왕의 태도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거나 마음먹은 대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자아의 태도와 같은 것이고, 또한 사실상 부성상과 동일시해왔던 자아의 실제적 모습이기도 하다. 선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시도는 전혀 여성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식이 변화를 피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인격의 성장과 변화도 전체성에서 비롯된 무의식의 보상적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낸다. 흥조의 해는 바로 그러한 문제가 의식되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민담에서 선왕의 결단은 예언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전망되었다. 민담에서 종종 동원되는 예언이나 신탁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원형들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예언이나 신탁으로 주어지는 원형들의 직접적

표명은 보상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 내용이 지배적인 인물상에 위협적이거나 치명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보상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선왕의 일방적 처리는 예언이나 신탁을 통하여 중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흉조의 해에 결혼 및 즉위를 하면 일곱 공주를 낳게 된다는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아들이 즉위하여 다시 아들에게 물려주게 하는 것은 부성-남성성의 의미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 된다. 예언은 균형을 잃고 일방적으로 되어버린 부성-남성적 특성에 대해 보상적 조치로서 일곱 딸들이 생겨날 것임을 알리는 것이다. 이처럼 신탁이나 예언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둘러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라 이루어진 즉위와 결혼에 대해 보완적 요소가 일곱 공주임을 제시한 것이다. 이 일곱 공주야말로 편향된 집단의식의 삶에 보충되어야 할 요소임을 알리는 것이다. 선왕도 왕위를 물려받은 왕자를 결혼시킴으로써 여성적 요소를 고려하기는 하였지만,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왕자의 비(妃)도 일방적으로 보충된 인물상이었던 것이다. 결국 예언으로 제시된 내용은 조화와 균형의 상실에 따른 여성적 요소의 보충으로 드러난다. 일곱 공주로 처방된 것은 그만큼 부성-남성성이 주도하는 정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강력한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 즉위한 왕과 왕비는 예언대로 일곱 공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일곱 번째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왕에 의해 버려졌다. 이런 의미에서 민담의 주인공인 일곱 번째의 공주는 부정적인 부성상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보여주듯이 공주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부성상의 우세함이 전제되어 있었다. 소위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적인 제도에 기초한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으로 태어난 사실만으로 이미 부정적 부성상의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바로 사회적 관습 및 제도적 장치가 그녀들의 여성성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부성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다가 생겨난 여러 딸들은 모두 일곱 번째 공주처럼 직접적으로 부정적 부성상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민담 〈바리공주〉의 여성 주인공은 부성상으로부터 일곱 번째의 공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음으로써 부정적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앞서 〈심청전〉에서 살펴보았듯이 긍정적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은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상을 끌어들이 정도로 부정상은 여성 자아에 지지적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상의 긍정적 지지에 의하여 외부 세계에 자신있게 나아가, 사회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부정상을 갖게 된 여성의 경우 이 민담에서 보여주듯이 집단 의식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아주 소외된 의식의 삶을 살게 된다. 예를 들면 부정상의 부정적 영향력은 이런 유형의 여성으로 하여금 주변 환경이 자신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서 의식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혹은 이런 유형의 여성은 모성상의 지지도 얻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긍정적 가치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이들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며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외감과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다. 혹은 자신의 본성에 기초하지 못하여, 언제나 삶의 터전을 전쟁터로 여기고 안주하지 못하여, 평생을 투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일곱 번째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살펴보자. 서양에서는 해와 달 그리고 다섯 행성으로 이루어진 일곱을 우주 전체의 전체로 보았다. 숫자 일곱은 동양에서 칠성(七星)사상을 형성할 만큼 우주적 전체성을 의미하는 수이다. 이야기에서 왕과 왕비가 일곱 공주를 낳고, 다시 일곱 번째 공주에 의하여 일곱 아들을 낳게 되는데, 숫자 일곱은 모두 전체성을 반영하는 특징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일곱 번째는 일곱으로 이루어진 전체성을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이자, 전체의 대표단수가 될 수 있다. 이 일곱 번째 요소는 또한 여성성의 셋과 남성성의 셋을 결합한 숫자 여섯의 정수(精髓) 혹은 에센스를 의미하는 하나이기도 하다. 이상의 의미에서 일곱 번째는 전체를 이루는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전체와 통하는 가장 가치 있는 대표단수이다. 그래서 일곱 번째에 대한 부정은 여성성, 혹은 새로운 여성성 전체의 부정이기도 하다. 일곱 번째의 공주가 부정상에 의해 부정되고 마침내는 버려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일곱 공주 모두가 거부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부정 콤플렉스의 여성 유형에서 이해한다면, 부정상은 사실상 여성성을 전혀 수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미 신탁으로 언급된 일곱 공주들은 집단의 삶에 보상적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부정상의 영향으로 여성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장해온 여성의 경우에 보상적 의미로 전체성을 상징하는 일곱 공주의 등장은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여성성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미 살펴보았듯이 대표단수로서의 일곱 번째 공주가 겪는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은 여성성의 분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숫자 일곱은 전체성을 상징하지만, 또한 보다 분화된 의식의 내용을 상징하는 숫자가 될 수 있다.

이 민담에서 흥미롭게도 일곱 번째 공주는 많은 남성 영웅들이 버려졌던 방식으로 상자(여기서는 옥궐)에 담겨서 버려진다. 남성 영웅들이 버려질 때 쓰이는 상자들은 남근 바구니로 알려져 있다. 바구니에 담긴 남성 영웅인 아기를 남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¹⁷⁾ 그러면 일곱 번째 공주는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혹은 역설적으로 일곱 번째는 남성으로 간주됨으로써 버리는 부모의 입장도 정당화되는 것인가? 그럼에도 상자나 바구니는 아기를 품고 있고 보호하고 있어서 모성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록 아기가 버려지지만, 모성적인 것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어 있다. 부성상에 의하여 부정되고 거부됨으로써 오히려 모성상의 활용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응에 따르면 ‘버려짐’은 영웅의 탄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영웅의 탄생은 정신의 탄생을 의미한다.¹⁸⁾ 일곱 번째 공주가 버려졌음도 새로운 정신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낸다. 일곱 공주들은 새로운 정신의 요소로서 집단에 제공되었지만, 부정적 부성상에 의해 전혀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곱 번째 공주는 버려짐과 동시에 부성상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부성상이 지배하는 세계관과는 다른 정신성의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공주가 버려져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스님이 발견하였다. 공주를 구해주는 스님은 불교라는 종교적 배경으로 사회적, 집단적 삶에 동참하기 때문에, 왕인 아버지와는 다른 특성의 부성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스님의 등장은 왕인 아버지가 제공하는 부정적 부성상을 치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된다. 민담에서 스님이 제자들과 중생을 구제하러 다니던 중이었다면, 그 또한 주도하고 있는 집단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집단의 삶을 쇠신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부성상이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님이 우연히 물에 떠내려가는 바구니에서 발견하게 된 공주는 바로 스님이 구하려 하던, 새로운 치유적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17) Jung CG(1952) : GW 5, “*Symbole der Wandlung*”, Par. 306.

18) Jung CG(1940) : 앞의 책, Par. 285.

아기는 께에 담겨 바다와 만나는 강에 버려졌지만, 결국 아기는 안전하게 노부부에게 인도되었다.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은 모든 것이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길목과도 같은 곳이다. 아기는 기존의 부정상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에서 거부되자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더 근원적 장소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곳에서 스님에 의해 발견되고 '바리공덕'이라 부르는 노부부에게 맡겨진다. 아기를 돌보는 노부부는 보호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근원적 부모상에 해당한다. '버려짐'이 영웅의 탄생을 의미하듯이,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것 자체가 영웅 탄생의 또 다른 표현에 해당한다. 낳아준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고 입양되는 것은 이중 부모의 주제, 즉 이중의 탄생 주제이므로, 일곱 번째 공주는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다시 한 번 탄생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공주가 '바리공덕' 부부의 손에 넘겨진 것도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공주는 소위 개인성에 기초하고 있는 육적인 부모를 벗어나 집단무의식의 근원적 부모상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들 노부부를 '바리공덕(功德)'이라 부르는데, 나중에 공주가 '바리'라는 이름을 얻듯이, 또한 공덕(功德)의 의미도 공유하게 된다. 공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행위와 관련되는데, 노부부나 공주 모두 부처님의 자비, 즉 인간의 보편적 이념을 실천하는 인물상임을 의미한다. 영웅들이 인류의 삶에 대한 남다른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부분도 이런 집단무의식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부정적 부정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 유형의 문제는 부정상의 부정적 영향력이 종종 자신에 대한 존재적 부정으로 드러나는데 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 유형의 경우에 사회적 소외를 오해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 쉽다. 이처럼 부정적 부정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이 의식의 삶을 제대로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소외될 수 있지만, 그러한 소외가 오히려 부정상이 지배하는 세계와 진정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민담에서는 이러한 부정된 상태를 보다 더 근원적 상태로 되돌리도록 제시하고 있다. 노부부가 함께 아기를 기르듯이, 모성상이 참여하는 원상적 부모상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부정적 부정상의 요구를 함묵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요구는 부정상에 따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부정상을 부정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

울이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철저한 소외나 고립의 요구는 한 개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라는 내적 요청이 된다.¹⁹⁾

민담에서 일곱 번째 공주는 어느 정도 성장하자 자신을 길러준 ‘바리공덕’ 부부가 자신의 부모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고, 진짜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

하루는 소녀가 노부부에게 묻기를 “제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새들이나 동물들도 각기 자기들의 부모가 있거늘!” 노인과 아내는 “우리가 네 부모란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소녀는 그들이 말한 것은 믿지 않았다. “이토록 늙은 신 분들이 저처럼 어린 아이를 어떻게 낳으실 수 있겠어요?” 소녀는 반박했다. 그랬더니 그 노부부는 그녀에게 말하길 “하늘은 네 아버지요, 땅은 네 어머니란다.” 소녀는 여전히 믿으려 들지 않으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이 우주의 만물은 창조했으나, 인간이 그들로부터 태어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노부부는 말하기를 “전라도에 있는 거대한 대나무가 네 아버지이고 뒷산에 있는 오동나무가 네 어머니란다.” 이 말을 들은 후로 그 어린 소녀는 어머니라고 믿는 것에 절을 하기 위해 하루 세 번씩 그 오동나무를 찾아갔다. 그녀는 거대한 대나무가 머니먼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갈 수가 없었다.²⁰⁾

공주가 자라면서 진짜 부모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 것은 유아기 아동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원을 알고자 하면서 자아의 분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는 바야흐로 공주가 개별적 인격에 관한 인식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리공덕’ 부부의 설명은 그들이 하늘과 땅일 수 있으며, 오동나무와 대나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설명은 그들이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상(像)의 기초, 집단무의식, 보편적 정신 영역에 속하는 인물상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공주는 ‘바리공덕’ 부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집단무의식의 영역과 구분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이 개별적 의식의 분화를 위하여 원상적 부모와의 구분을 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로써 이제 공주는 개별 인격의 특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진짜 부모인 왕과 왕비가 공주를 찾아내게 되었으나, 처음에 바리공

19) Jung CG(1940) : 앞의 책, Par. 304.

20) 최인화·엄용희 편저(2003) : 《옛날이야기꾸러미 3》, 442-443쪽.

주는 자신이 그들의 자식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왕과 왕비의 혈액을 담은 쟁반에서 공주의 혈액이 하나로 섞이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왕과 왕비를 만나러 떠난다. 이는 공주가 ‘바리공덕’ 부부인 원상의 부모와 분리하여 차츰 개별적 인격으로 분화되는 것을 하늘과 땅인 세계 부모에서 오동나무와 대나무인 대지의 부모로, 마침내는 피가 통하는 인간 세계의 부모로 인식하는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제 공주의 의식 수준이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고, 개별적 인간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민담 〈바리공주〉가 무속인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듯이, 공주가 강에 버려지고 노부부에게 길러지는 것은 무속인이 신병에 의하여 거의 죽음의 상태에 도달한 것과 같다. 무속인의 신병은 주로 집단무의식의 원형적 힘이 너무나 막강하여 자아가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마침내는 자아의 해체 및 용해가 되면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나타낸다. 해체가 되었지만, 자아가 무의식의 도움으로 다시 의식의 중심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아의 재탄생인데, 이러한 재탄생이 있어야 신병을 앓은 자아가 개인 인격을 되찾는 치유에 이른다. 이를 공주의 부모상이 우주적 단계에서 세계적 단계, 그리고 대지의 식물적 단계를 거쳐 마침내 뜨거운 붉은 피가 흐르는 인간의 단계에 이르는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다. 공주가 오동나무와 대나무를 부모로 받아들이는 단계는 아직 자아가 개인성적 실현획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왕과 왕비의 부름을 받고 노부부를 떠남으로써 비로소 공주가 개별 의식의 삶을 펼칠 인격의 재탄생이 이루어진 것이다.²¹⁾

보충적으로 민담에서 일곱 번째 공주가 15세 되던 해에 왕과 왕비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자. 민담의 시작에서도 15세에 왕자를 결혼시켜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다. 15세 혹은 숫자 15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숫자 5는 이쉬타르나 비너스 등, 모성신의 숫자인 5이다. 숫자 15는 5×3의 숫자이므로 숫자 5의 특성을 역동적으로 강조하여 배열한 것이다. 따라서

21) 일반적으로 〈바리공주〉의 민속학적 연구에서 보면 무상신에게 신약을 구하러 가는 것을 무속인의 신병 체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오히려 ‘바리공덕’ 부부에게 길러졌던 시기를 무속인의 신병 체험의 시기로 간주한다. 공주가 ‘바리공덕’ 부부에서 보살피졌던 시기는 연금술적으로 니그레도(nigredo, 검정)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무상신과의 생활은 오히려 집단적 가치를 갖추게 되는 여성 샤먼의 의식적 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숫자 15는 모성신의 특성이 활성화된 것을 알리는 수이다. 중국에서는 사방위의 중심 혹은 마방진(魔方陣)의 중심에 숫자 5를 배치하고, 팔방으로 8개의 숫자를 둘러싸게 배열하여, 어느 쪽에서든 합하여 15가 되게 한다. 이런 마방진의 형상은 중심에 토양, 대지(土)의 자리인 5를 중심에 두었듯이, 구체적인 삶의 다양한 현상들은 언제나 모성-여성인 대지 혹은 토양과 관계된 것임을 나타낸다.²²⁾ 선왕의 아들이 15세가 되었을 때 왕위를 물리게 되었거나,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던 공주가 15세가 되자 비로소 부름을 받게 된 것을 살펴본다면, 모두 모성-여성적 요소의 배열로 인한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홍조의 해라는 의미도 15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일곱 딸들의 탄생을 예고하였듯이, 모두 모성-여성적 요소의 배열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곱 번째 공주는 모성-여성적 요소의 배열로 인하여 부각된 신생의 여성 인물상이다.

민담에서 왕과 왕비는 중병에 걸려 온갖 약을 구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어서 한날한시에 죽어야 했다. 왕과 왕비의 병은 일곱 번째 공주를 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밝혀진다. 병든 왕과 왕비는 버린 일곱 번째 공주를 되찾고 무상신의 신약인 생명수를 찾으면 살아날 수 있다. 여기서 공주를 버려서 왕과 왕비가 병들었다 함은 공주를 버린 행위에 대한 도덕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공주가 바로 집단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 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왕과 왕비가 자신들이 부모임을 밝히고, 공주에게 ‘바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서 비로소 공주의 존재를 인정한다. 공주는 진짜 부모를 만나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게 됨으로써 진정한 개별적 존재의 주체가 된 것이다.

여기서 잠시 ‘바리공주’라는 의미를 살펴보자. ‘바리’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바리’는 ‘버리다’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버림’을 받은 공주라는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버려지는 것’은 영웅의 탄생이자, 새로운 정신의 탄생이듯이, ‘바리’라는 표현은 그녀가 진정한 여성 영웅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바리’는 말이나 소의 등에 실은 짐을 의미하는데, 이는 또한 여성 영웅에게 주어진 운명적 과제의 무게를 의미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닥친 운명적 사건을 기꺼이 지고 가는 여성 영웅을 ‘바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바리공덕’의 부부에

22) 예를 들면 음양오행의 기원적 표상으로 간주하는 낙서(洛書)에서 5(土)를 중심으로 둔 마방진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게도 ‘바리’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주에게 주어진 ‘바리’라는 이름은 ‘바리공덕’ 부부의 세계 즉, 보편적 정신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왕과 왕비가 바리공주를 되찾았지만, 그들의 병이 낫지 않은 것은 공주가 집단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바리공주는 집단의식에 대해 아직 실질적 영향력을 갖지 못한 존재인 것이다. 집단의식의 대표주자인 왕과 왕비의 회복은 공주를 되찾는 것 뿐 아니라, 신약(神藥)을 구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바리공주는 다른 자매들이 거부한 신약 구하기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부정적 부정 콤플렉스의 여성 유형에서 살펴본다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난 인격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아직 실제적으로 의식의 삶에서 구체화된 내용성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 새롭게 탄생한 정신은 이전의 인격과 달리 보편적 정신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아직 의식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리공주에게는 그러한 보편적 인간을 의식에서 실현하는 과제가 제시되어져 있는 것이다.

신약을 구하는 영웅들의 과제에 대해 고려해보자. 신약은 만병통치약, 불사약, 생명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신약은 민담에서 주로 어딘가 특별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구할 수 있다. 연금술에서는 이를 ‘어렵게 도달해야 하는 가치 있는 것(die schwer erreichbare Kostbarkeit)’이라고 하며, 연금술적 작업의 최종적 결과물이자 전체성의 상징인, 제 5의 요소, 즉 정수(精髓, Essenz)로 간주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리공주’가 찾아야 되는 신약은 사실상 ‘바리공주’ 자신의 영웅적 여정에서 도달해야 하는 전체성, 즉 전(全)인격적 실현 과정의 궁극 목적과도 같은 것이다.

바리공주는 신약을 구하기 위하여 남장을 하고 떠나게 된다. 남장을 하고 있는 측면은 앞서 이미 남근 상자에 담겨졌던 것처럼 여전히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장을 하고 떠나는 바리공주는 자신의 원래적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의 치유가 바로 바리공주의 고유함이 회복되는 것이 될 것이다. 여정을 위하여 스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우선은 긍정적 부정상에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 남장을 하고 부성상의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것은 부성 콤플렉스가 이제 긍정적으로 그녀에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녀가 남성-부성상과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 여전히 남성적 인격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²³⁾ 숫자 15로 나타난 모성신의 원형적 배열이 이미 제시하고 있듯이, 궁극적으로 공주가 자신의 여성성을 회복하여야만 진정한 의식적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버려짐'의 주제에서 새로운 의식성의 탄생을 제시하였다. 부정적 부성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이 부성상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던 것은 바로 부성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정신세계와 연결하고 소통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그 여성은 집단 의식의 삶에 다른 정신의 내용을 가져올 인물상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정적 부성상에 의한 거부기가 있었다가 다시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부성상의 요구에 따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성상이 병들어 있다는 것은 부성상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스님도 공주에게 나화(羅花)를 주며 스스로 길을 찾아가라고 함으로써, 부성상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하였다. 따라서 무상신이 살고 있는 곳은 오히려 부성상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그래서 모성상이 살아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 무상신이 바리공주에게 요구하는 과제도 모두 여성의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스님이 무상신을 찾을 수 있게 제공한 것은 나화이다. 이는 아주 비단결 같이 아름다운 꽃을 의미한다.²⁴⁾ 꽃의 상징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고, 또한 그 자체 모든 것을 품어내는 모성적 수용력을 상징한다. 스님이 꽃을 준 것은 더 이상 부성상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신뢰하고 내면의 소리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라는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꽃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무엇이 보상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능을 한다. 바리공주가 꽃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도달하게 된 곳에 무상신이 살고 있다. 그곳에 사는 무상신의 묘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성 혹은 남성성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성 정체성의 내용이 아니다. 여성성 혹은 남성성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할 때 드러나는 자기다움과 관련된 것이다. 자아가 집단무의식의 영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함이 결국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24) 이는 경기대 국문학과 김현선 교수의 보충 설명에 따른 것이다.

무상신은 매우 키가 커서 하늘에 달을 듯했으며 그의 얼굴은 쟁반만큼이나 크고, 그의 눈은 등잔 같으며, 그리고 그의 코는 병 같았다.²⁵⁾

위의 묘사를 참고해보면 무상신은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무상신은 그가 관장하는 영역 전체에 상응하는 모습이어서 거대한 창조주와 같다. 무속적으로 무상신의 아주 크고 무시무시한 형상에 대하여 도깨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무상신을 약수를 지키는 신으로 무장승 혹은 물장승이라 부른다. 무상신이 지키고 있는 생명수, 즉 생명력을 붙여넣을 수 있는 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는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의 활력, 혹은 정신의 활동을 좌우하는 인물상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분석심리학적으로 볼 때 무상신은 바리공주의 아니무스(Animus)로 간주될 수 있다. 무상신의 어마어마한 모습은 아니무스의 강력한 보상적 입장이나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는 ‘바리공주’가 남장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정적 부정상에 의하여 오랫동안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개인 인격의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지만, 바리공주는 여전히 자신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남성의 형상이었다. 이는 실제로 부정 콤플렉스의 여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부정상의 요구는 여성에게 어떤 것이든 개인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임무가 되고, 그로 인하여 저절로 무장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남성적 모습이 되고 만다. 또한 부정상의 요구는 언제나 외향적 역할 중심이 되므로, 자연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면에 집중하도록 하는 아니무스의 모습이 더욱 강조된다. 이제 무상신은 바리공주가 부정상에 벗어나면서 만나게 되는 진정한 자아의 대극 쌍, 즉 아니무스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상신은 바리공주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여성적 과제를 제시한다.²⁶⁾

바리공주가 무상신과 더불어 9년 동안 물 길기, 장작 마련하기, 불 피우기를 하는 내용은 여성이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일들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여성의 일상적 과업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밭일, 길쌈, 요리 및 양육 등은 모두 반복적인 일상의 작업으로 보이지만, 여성 개인의 적극적인 창조적 활동성에서

25) 최인학·엄용희 편저(2003) : 앞의 책, 445쪽.

26) 아니무스의 원래적 기능 자체가 자아의 태도를 바로잡게 하고, 자신이 속한 세계를 매개하여 전체성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나오는 것이다. 매끼마다 받는 밥상을 생각해보라. 잠자고 먹고 생활하는 일상의 삶은 감각적으로 쉽게 무너지고 만다. 이를 생동감 넘치게, 자연에 대한 감사와 노동의 대가를 누리게 만드는 것은 모두 여성의 적극적 창조적 활동에서 비롯된다. 여성은 자연에 널려 있는 것들을 개별적 삶의 장소에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가져오는 구체적 활동을 한다. 자연의 산물을 매번 생활 속에 끌어들이는 것은, 변화무상한 자연의 생산력을 삶의 활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은 이를 지성적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서 올라오는 창조적이지자 자발적인 활력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집단의식을 대표하는 부성상이 제대로 집단을 이끌지 못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자연의 창조적 활력을 끌어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했던 것이었다. 여성의 아니무스(무상신)는 자아가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활력을 불어넣고, 자연의 지혜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되살려주었다. 무상신이 바리공주에게 물 길기, 장작 마련하기, 불 피우기 등의 여성적 작업에 충실하도록 한 것은 모두 모성-여성적 창조적 역할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바리공주는 무상신과 결혼하여 일곱 아들을 얻게 된다. 무장승은 바리공주에게 여성적인 창조적 활동을 되살리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모성의 역할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바리공주는 모성-여성으로서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일곱 아들은 바리공주와 무상신이라는 대극의 합일의 결과로서, 그리고 일곱 행성에 해당하는 전체성을 나타내므로 전(全)인격적 통합의 산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아들 일곱은 바리공주의 전(全)인격적 실현을 상징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비로소 여성 자아는 자신의 내면과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진정한 인격의 주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아들 일곱은 여성 아니무스의 창조적 활동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신적 분화의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이 일곱 아들은 앞서 일곱 공주의 탄생으로 문제시되었던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상징이다. 그래서 일곱 아들은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리기 위하여 돌아올 때 이들 집단의 삶에 새로운 전형으로서 제시된다. 이로써 여성적 요소와 남성적 요소간의 균형 있는 일치가 있게 되었다. 바리공주는 자신의 모성-여성성을 회복함으로써 무장승과의 결합을 할 수 있었고, 이로써 전(全)인격적 통합이 가능해졌으며, 마침내는 부모 및 집단의 삶을 치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부정적 부정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자신의 치유가 부정상의 치유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부정적 부정상이 바리공주를 내세워 이루고자 한 것은 모성-여성성의 근원적 요소를 가져와 부정-남성성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하고 치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리기 위해 돌아올 때 일곱 아들과 무상신을 데리고 오는 데, 결국 바리공주가 아니라 일곱 아들(칠성으로)이 새로운 집단의 대표주자가 된다. 이처럼 민담은 바리공주를 통하여 모성-여성성은 집단의 전체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변화에 이르게 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여기서도 바리공주는 모성-여성적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부정상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무상신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완수하려는 수용력으로 과제를 완수하였던 것이다.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소화해내는 수용성이야말로 바리공주가 위대한 개별자, 전(全)인격적 존재가 되게 하는 힘이였다.

결과적으로 ‘바리공주’는 생명수와 집단의 삶을 이끌어갈 일곱 아들을 데려옴으로써 무상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의식의 삶에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 또한 일곱 아들, 즉 북두칠성 혹은 칠성을 낳은 ‘바리공주’는 모성신의 면모를 아낌없이 드러낸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바리공주가 저승세계를 다녀왔기 때문에 망자(亡者)를 지켜주는 신으로 이해하고 있듯이,²⁷⁾ 원래 모성상은 모든 생명이 탄생을 준비하고, 의식의 빛에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보호자로서 기능한다. 바리공주는 의식의 탄생을 준비하는 모든 존재에게 지지와 보호를 아끼지 않는 모성신의 전형이 된다.

나가는 말

앞에서 다루었던 두 민담을 통하여 부정 콤플렉스의 여성의 유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정상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자신의 여성성은 물론이고, 개별 인격 전체가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정상은 초기 아동기부터 기능하는 원형상이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담에서 보여준 여성 주인공들은 부정상의 유력함을 인식하고 그 힘을 끌어들이는 인

27) <바리공주>는 실제 진오귀곳에서 구연된다. 이 곳에서 바리공주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망자의 넋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역할을 한다.

물상이 아니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부성상의 원형적 매력에 이끌리고 사로잡힌 인물상들은 근본적으로 부성상에서 벗어나는데 의의를 두지 않을 것이다. 민담의 주인공들은 부성상의 거부할 수 없는 요청에 의하여 부성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부성상을 벗어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의 원형에 사로잡히면 결코 전(全)인격적 실현을 이루지 못한다. 부성상을 스스로 끌어들이지 않았지만, 부성상의 강력한 영향력에 놓인 여성도 반드시 부성상과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담에서 제시하는 부성상과의 분리는 긍정적 부성 콤플렉스의 경우 부성상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함으로써, 부정적 부성 콤플렉스의 경우는 부성상을 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가 결과적으로 여성 주인공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희생이야말로 부성상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해결책이었다. 민담은 여성 주인공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성상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능동적 수용성을 제안하였다. 부성상의 요구에 모성-여성적 수용성으로 반응하고, 의식에서 능동적으로 실현하라는 것이었다.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겪어내는 수용성 자체가 바로 여성 인격의 위대함이다. 여성에게는 삶에서 겪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 자체가 부분적 인격의 면모를 해체하고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다시 통합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보편적 인간이 되게 하는 변환 과정이 된다. 민담에서는 부성상에서 벗어나자마자 동시에 새로운 인격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한 인격의 재탄생이 개인에게는 개인의 전(全)인격적 실현이자, 집단의 삶을 위한 새로운 전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두 민담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부성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여성은 저절로 집단의 삶에 관여하게 된다. 민담에서 드러났듯이, 한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의 극복은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결국 집단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온다. 우리 시대에 부성 콤플렉스의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만큼 집단의 삶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그것의 치유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부름을 받은 여성의 수가 그토록 많다는 것은, 부름을 받은 여성들이 제대로 부성상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각

개별 여성이 자신의 본성에서 비롯된 여성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삶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건전하게 생활하게 될 때, 집단의식에 보상적인 가치나 치유적인 삶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Jung CG(1952) : GW 5, “*Symbole der Wandlung*”, Walter Verlag, 1979(1971).
 Jung CG(1921) : GW 6, “*Psychologische Type*”, Walter Verlag.
 Jung CG(1928) : GW 7,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ßten”,
Zwei Schriften über Analytische Psychologie, Walter Verlag.
 Jung CG(1936) : GW 9/I, “Über den Archetypus : Der Animabegriff”, *Die Archetypen und das Kollektive Unbewusste*, Walter Verlag.
 Jung CG(1939) : GW 9/I, “Die psychologischen Aspekte des Mutterarchetypus”, *Die Archetypen und das Kollektive Unbewusste*, Walter Verlag.
 Jung CG(1940) : GW 9/I, “Zur Psychologie des Kindarchetypus”, *Die Archetypen und das Kollektive Unbewusste*, Walter Verlag.
 Jung CG(1946) : GW 9/I, “Zu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m Märchen”, *Die Archetypen und das Kollektive Unbewusste*, Walter Verlag.
 Von Franz ML(1986) : “*Psychologische Märcheninterpretation*”, Kösel, S. 127-8.
 최인학 · 엄용희 편저(2003) : 《옛날이야기꾸러미 3》, 집문당.
 김현선 역주 : 은하엄마 이상순 말미 바리공주 구연본.
 김현선 역 : 배경재본 바리공주, 현대역.

Shim-Sŏng Yŏn-Gu 2010, 25 : 1

〈ABSTRACT〉

Womans' Father Complex in Fairy-Tales

- Focused on two Korean Fairy-Tales <Shimchung> und <Barli Princess> -

Youkyeng Lee, Ph.D.

By considering the final purpose and meaning of two fairy-tales, we can summarize two things. Firstly, a woman with father complex not only positive, but also negative can easily sacrifice her femininity and her own personality as an individual. A woman with father complex has to get out of father imago. By separating from father imago, she can make her own steps to realize her own personality, namely individuation.

During normal development, detachment to instinct and archetypal contents can cause problems normally to the ego consciousness. Contrary to this developmental notion, women with father complex experience problems because they are too closely attached to father archetype. Therefore, continuous excessive identification of ego with father imago or a state of ego caught by father imago leads to death of her own personality. Some women intentionally attach to father imago in order to be powerful or to receive magical power of father archetype to make compensation to her inferiority and deficiency. Weak ego wants to be stronger and superior by intentional attachment to father imago. Then, she can succeed in some tasks in life. But These successes are not by her own effort, but by magical or superhuman power of father imago. During early childhood, young girl with weak ego strongly attaches to father imago to make success and achieve goals by magical power. She wants to compensate her weak ego. But the more her ego makes successes in real life with help of father imago, the more she loses her own character or personality. Ego can be strong enough only when it is detached or separated itself from father imago.

In other side, there is a woman destined to realize request by the father imago. She is chosen by the collective unconscious, though she try to run away from

dominant power. In this case, ego of selected woman is not weak. She is destined to be a heroine. She knows that she has to complete every task given to her to realize what father imago wants, and she will not own any of her products at all. She is a real or true heroine. She wants to avoid her destiny, but she can't and should not do it.

Secondly, a woman with father complex is called for again to save father imago or to solve problems of father imago. In this case, father imago of a woman should be considered to be related to the collective conscious. Therefore, it is said that all women with father complex are invited for healing the society or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To complete this request, she has to heal herself by recovering her femininity. The healing power is based on the maternal receptive capacity.

In modern society, the women are always demanded to be a social being. These social demands can make women caught by father complex. In this sense, number of women with father complex are increasing.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wo fairy-tales, increased number of women with father complex should be easily considered as events at personal level, but seriously considered as a phenomenon reflecting problems in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f our age.

In the other hand, all women with father complex are invited to solve the problem of modern society. She will be able to realize her own individuation without being possessed by father imago, to save our society and to become a heroine of our age.

KEY WORDS : Woman · Father complex · Fairy tales.